

#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목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한 새사람

성경: 창 1:26-28, 엡 2:15-16, 4:24, 6:10-13, 골 3:10

### I. 영원한 목적, 곧 시대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다 — 엡 3:11, 1:9, 11, 롬 8:28.

- A.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과 똑같아질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이다 — 요 1:12-13, 요일 3:2.
  - 1. 그들은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외양과 광채와 영광과 외적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 계 4:2-3, 21:10-11, 18.
  - 2.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성취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백성 안으로 일해 넣어질 때, 그들 안에서 신진대사적인 반응이 일어나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같아지게 한다 — 요 3:15, 요일 5:11-12, 고 후 3:18, 롬 8:29.
- B. ‘사람’은 성경에서 매우 중대한 단어이다 — 창 1:26, 시 8:4-6.
  - 1.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
  - 2.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사람이 인류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다.
  - 3.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수단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수단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다 — 겔 1:26, 5, 10.
- C.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한 단체적인 사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 창 1:26-28, 5:1-2, 엡 3:11, 1:9, 11.

### II.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 창 1:26.

- A.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비밀한 사상이 있다 — 창 1:26, 겔 1:26, 요일 3:2하, 계 4:3상, 21:11하.
  - 1.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께서 사람과 같아지시고 사람을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것이다 — 요일 3:2하.
  - 2.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와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것이다 — 엡 3:17상.
- B. ‘우리가 ... 사람을 만듭시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신격의 셋 사이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계시한다 — 창 1:26상.
  - 1.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결정은 영원 과거에 내려졌는데, 이것은 사람이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 엡 3:9-11.
  - 2.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려는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 딤편 1:4, 롬 8:11.
- C.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 창 1:26상.

1.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속성의 내적 본질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사랑(요일 4:8), 빛(요일 1:5), 거룩함(계 4:8), 의(렘 23:6)이다.
  2.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빌 2:6)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위격의 본질과 본성의 표현이다.
  3.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복사판으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 고후 4:6-7, 3:18.
- D.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엡 3:17상.
- E.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경륜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여 그분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 딤후 1:4, 요 3:16, 뱀후 1:4, 고후 3:18.
1.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 고후 10:1, 11:10.
  2.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복사판, 곧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게 하실 의도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생산은 그분과 똑같은 모습을 가졌고 그분과 똑같이 말하며 그분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 요 12:24, 롬 8:29, 히 2:10, 요일 3:1-2.

### III. “그들이 ... 통치하게 합시다. ...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 통치하여라.” — 창 1:26, 28.

- A.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신 의도는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창 1:26, 28.
1.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것들은 뱀인 사탄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과 귀신들을 예표한다 — 창 1:26, 3:1, 14, 계 12:4, 7, 9, 마 25:41, 비교 눅 10:19.
  2.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여라’라는 말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느 쪽이든지 이 땅을 얻는 쪽이 승리자이다.
  3. 하나님께서는 골칫거리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주 안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 사 14:12-14, 겔 28:12-18.
    - a.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심으로 그분의 골칫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 — 창 1:26.
    - b. 사람이 특별히 이 땅을 다스려야 하고 심지어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에게 강탈되었기 때문이다 — 창 1:28.
  4.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행사할 사람이 필요하시며, 반역적인 땅을 굴복시키고 정복할 사람이 필요하시다 — 마 6:9-10.
- B.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신 의도는 땅을 회복하시려는 것이다 — 창 1:28.
1.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땅을 회복하실 의도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 창 1:26.
  2.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은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을 위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 창 1:26, 28.
  3. 하나님은 이 땅을 되찾기를 원하신다. 이 땅은 결정적인 장소, 곧 사탄도 붙잡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되찾기 원하시는 곳이 되었다.

C.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신 의도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 마 6:10, 13하.

IV. 한 새사람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사람이다. 이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 엡 2:15, 4:24, 6:10-13, 골 3:10.

A. 성경은 한 새사람이 어느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이며 우주적인 사람임을 계시한다 — 엡 2:15, 4:24, 골 3:10-11.

1. 한 새사람은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다.

a.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은 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곧 새사람의 머리시다 — 롬 8:29, 엡 4:15.

b. 많은 하나님-사람들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곧 새사람의 몸이다 — 엡 4:16, 24.

2.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새사람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한 새사람의 일부이다 — 엡 2:15-16, 4:24.

a. 많은 믿는 이들이 있고 많은 지방에 교회들이 있지만, 우주 가운데에는 오직 한 새사람이 있다 — 골 3:10, 4:15-16.

b.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러한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새사람의 구성 요소이다.

B. 한 새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투원이다 — 엡 6:10-13.

1. 전투원은 교회의 신분이 아니라 새사람인 교회의 한 방면이다.

2. 단체적인 새사람으로서 교회는 전투원이고, 믿는 이들은 함께 이 새사람을 구성한다.

3. 우리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몸 안에서, 곧 한 새사람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하나님의 경륜의 적극적인 의도

영원 과거에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회의를 가지셨다. 그 신성한 회의에서 삼일 하나님은 의결을 내리셨으며, 이 의결이 그분의 경륜이 되었다. 하나님의 경륜의 적극적인 의도에는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어

####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인성 안에서

####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얻는 것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적극적인 의도의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창 1:26상). 이 땅 위에서 한 명의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태 속에 들어가셨을 때, 창조된 사람인 아담과 연합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신 것이다. 사람인 우리는 모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났을 뿐 아니라 창조되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도 창조되었다. 우리는 출생을 통하여 다만 그러한 창조에 참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셔서 사람과 하나 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인성 안에서 표현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삼십삼 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때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나타나셨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복사되고 대량 생산되셔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오순절날, 일시에 삼천여 명의 믿는 이들이 산출되었다(행 2:41). 이 믿는 이들은 모두 작은 ‘그리스도들’이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량 생산이었다.

###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시어, 사람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적극적인 의도의 두 번째 항목은 사람에게 땅과, 땅 위와 바닷속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어 사람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분을 대표하게 하시는 것이다(창 1:26하, 28하).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를 다룬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고 하나님의 대표이심을 계시한다. 작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막 4:39). 그분의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과연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41절)라고 하였다. 그분은 작은 나사렛 사람이셨지만,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였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셨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셨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기를 배워야 한다.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30-132쪽)*

### 사람의 모양을 지닌 네 생물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시지만 그분은 표현을 가지셔야 하며, 이 표현은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표현이 없게 된다. 수백만의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표현할 단체적인 사람이 필요하시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경시하지 말라.

사실상 성경에는 네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첫 사람, 둘째 사람, 새사람, 사내아이이다. 우리는 첫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라 불리신다(고전 15:47).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사람이 되었고, 이제 사내아이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사역은 새사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내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교회가 반드시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계신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람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람의 표현임을 뜻한다.

에스겔서 1장 26절은 주님께서 오늘날 보좌 위에 계신 사람이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결국 사람이 되셨다. 생물들인 우리는 사람이신 그분을 표현한다. 그분은 보좌 위에 계신 사람이시며, 우리 역시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대적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 안으로 가져오는 것도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기독교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당신을 천사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을 갖는 것임을 밝혀 준다. 간교한 자가 첫 사람에게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창 3:5)이라고 말하여 그를 유혹했음을 기억하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관념이 우리의 핏속에 있어 왔다. 모든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관념을 갖고 있다. 마귀적인 가르침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라고 격려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사람이 아닌 어떤 것으로 만드시려는 의도가 없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려 놓아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생물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갖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결코 천사처럼 행동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행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에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필요로 하시는 것이다.

에스겔서 1장의 이상은 네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계시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은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지닌 것에 달려 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 둘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것은 그분의 움직임을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사람의 모습을 지닌 네 생물은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다.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보좌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보좌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은 사람의 모습을 지닌 네 생물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행정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수단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수단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서, 사람은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을 얻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나타나심과 움직이심과 행정의 수단으로 삼으시려고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의 모습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5장, 59-62쪽)*

## 새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한다. 이 새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새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생활하는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 안에서, 곧 옛 사회 안에서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옛 사회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인 교회를 입어야 한다. 이 새사람 안에는 어떤 타고난 것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속한 것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속한 것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골 3:10-11).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의도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야망이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이며,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신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에 의하면, 이 새사람은 은혜와 실재에 의해 생활한다. 은혜와 실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새사람의 생활에 있는 두 가지 주된 요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의 의도를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한 새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성경의 기본 계시, 95-96쪽)*

## 새사람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1:22-23),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가족이고(2:19),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거처(2:21-22)임을 계시한다. 2장 15절과 4장 24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새사람임을 본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클레시아(ekklesia)’로서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 즉 회중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회의 첫 번째 방면이다. 이 방면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의 방면으로 계속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초보적인 방면보다는 높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방면만큼 높지는 않다. 그러나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보다 훨씬 더 높은 방면이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믿는 이들의 모임이나 하늘에 속한 시민들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몸만도 아니다. 교회는 그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새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그 강조점은 생명에 있음에 비해, 새사람인 교회에 대한 그 강조점은 인격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새사람인 교회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생명이 없는 몸은 몸이 아닌 시체이다. 그러나 몸이 움직일 때에는 생명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적인 새사람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실재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실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사람에 대한 그림이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새 창조물의 표상이요 예표임을 뜻한다. 하나님의 옛 창조물에서 그 중심인물은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모두에서 그 중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창 1:26) 그 후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통치권은 표현의 문제가 아닌 대표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통치를 위한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신다. 옛 창조물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분을 대표하기 위해 그분의 통치권을 갖도록 창조되었다.

형상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를 말하고, 통치권은 하나님의 소극적인 의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는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소극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 사탄, 마귀를 처리하는 것이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 즉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직접 그를 처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대신 그분은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한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 그를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 적극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이다.

옛 창조물 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땅에만 국한되었다. 이것은 옛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물 안에서 통치권은 온 우주로 확대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셨지만, 옛 창조 안에서는 실재를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의 표상이자 예표인 사람을 창조하셨다. 실재를 가진 사람

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 창조하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새사람이라 불린다. '새사람'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상기시켜 준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이중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두 방면의 목적을 완성한다. *(신약의 결론, 교회, 282-284쪽)*